

시의회에서는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 동작 등 6개 구의회가 찬성의견을, 중구, 강동 등 2개 구의회가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으며,

- 서울시(집행부) 주관으로 지난해 9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이금라의원, 이양한의원, 홍순철의원 등 우리 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재정경제부, 자치구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 세목교환과 관련된 찬반양론의 의견이 있었음.

종합토지세(구세)와담배소비세(시세)의세목교환을위한지방세법개정추진건의문(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와 그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민선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는 현재의 극히 불합리한 지방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동 세계개혁을 통하여 지역회합과 건전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98년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강남구는 820억원인데 반하여 도봉구는 58억원으로 구간 격차가 무려 14배 이상의 극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강남구는 350억원, 도봉구는 132억원으로 2.6배에 지나지 않아 큰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시 21개구는 세수가 증대하고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중구)만이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개발시 강북재원을 들여 도로망과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강남지역은 기반시설이 거의 정비된 반면, 도봉·성북 등 강북지역은 도로망의 정비가 불비한 점 등 사회기반시설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세수

가 적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시세와 구세가 잘못 배분된 데 기인된 것입니다.

이렇듯 불합리한 지방세제의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정력이 풍부한 자치구의 반대로 담보상태에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시민 대표기관인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통하여 지역회합과 건전한 경쟁 그리고 지방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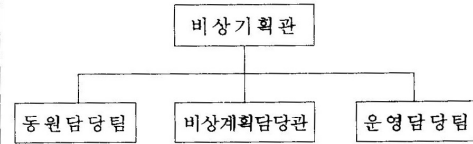
1999년 2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非常企劃官 '99年度 業務計劃報告

一 般 現 況

□ 機 構



□ 機 能

- 비상시 대비 총무계획 및 자원동원계획 총
- 팔·조정
- 울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 주관
- 군 관련 지원 협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 비상사태시 군작전 지원 및 행정기능 유지, 시민생활 안정 도모

□ 人 力

구 분	계	2 급	5 급	6 급	7 급	기 능
정 원	16	1	3	4	4	4
현 원	15	1	3	4	4	3